

2010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2011. 04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 2010년 4분기 콘텐츠산업 분야별 분석 및 전망

2.2. 출판/만화산업 분석 및 전망

□ 매출부문

- 출판 및 만화산업의 '10년 4분기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출판은 약 5조750억원이며 만화는 약 1,763억원으로 출판/만화 상장사 매출액 비중은 1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장사 매출액 분석을 살펴보면 '10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하였고 전분기대비 3.6% 상승하였으며 CBI 분석 결과 출판과 만화 모두 4분기 89, 72로 부진한 상황임

□ 수출부문

- 출판 및 만화산업의 '10년 4분기 수출규모를 살펴보면 약 529억원이며, 상장사 수출액 비중은 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장사 수출액 분석을 살펴보면 '10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59.9% 감소하였으며 전분기대비 -47.9% 하락하였으며 CBI 분석 결과 출판과 만화는 4분기 각각 88, 82로 부진이 지속됨.

□ 고용부문

- 출판/만화산업의 '10년 4분기 고용규모를 살펴보면 215,500명이며 상장사 고용 비중은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장사 고용 분석을 살펴보면 '10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1.4%로 증가하였으며 전분기대비 0.2% 상승하였으며 CBI 분석 결과 출판 84이며 만화 78로 부진함

□ 출판/만화산업 2011년 1분기 전망

- 출판/만화산업 '11년 1분기 매출CBI는 각각 92, 85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출판산업은 '11년 1분기의 경우 신학기 등의 교육관련 수요 증대가 예상되며, 또한 인터넷 서점의 매출액은 소비자들의 구매행태의 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11년 1분기는 '10년 하반기에 이어 스마트패드 출시 등 전자출판 시장확대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으며, 일부 전자책 전용 앱(구름뽕, M바로북 등) 및 콘텐츠수의 증가로 국내 전자출판 시장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콘텐츠들의 부족 및 전용 단말기 보급 정도가 낮아 당분간 전자출판이 성장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 스마트패드(테블릿 PC 등)용 서적출판물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이 시작단계에 있으며, 교원애니메이션은 '꼬임꼬임 이숙극장'과 예림당의 'Why?' 시리즈가 대표적인 사례임
 - 국내 만화 시장에서 웹툰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에는 신인 작가들의 전용으로 생각되었으나, '10년 하반기부터 기존 만화가도 웹툰 작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임. 국내 만화시장에서의 웹툰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이에 대한 적합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 ※ 허영만 화백의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를 다음과 디지털조선에 동시 연재하고 있으며, 무료 웹툰에도 광고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소비자들의 여가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반해 다양한 매체 및 디지털콘텐츠(게임, 동영상(영화, 드라마 등)) 등 경쟁콘텐츠의 수요증가로 인해 출판물 구매가 감소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출판/만화산업 '11년 1분기 수출CBI는 각각 80, 82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11년 1분기 출판/만화 수출은 전반적으로 정체 및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출판물의 경우 일부 교육 흥행작품(Why?, 마법천자문 등)은 꾸준히 수출되고 있음. 또한 출판 저작권의 경우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출판 저작권의 경우 2008년 1천54건에서 2010년 1천 477 건으로 연평균 약17.2% 로 증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이 전체의 94%

- 출판/만화산업 '11년 1분기 고용CBI는 각각 88, 85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 출판/만화산업의 인력은 정체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오프라인 도소매 시장 침체에 따른 인력 이탈을 대체할 구조적인 요소가 부재
 - ※ 오프라인 도소매에 비해 인터넷 서점은 유통 효율화(판매 및 영업사원 불필요)에 따른 인력 수요가 적은 편임